



◆ 진 찰 ◆

18세기에는 인류가 직면하는 모든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, 과학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다.

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중병을 앓고있는 환자앞에 놓고 의사들의 무력함이 잘 나타난 풍자화이다.

이 작품은 토마스·로란스작(진찰(1808년)) 최후의 소망. 명의들이 머리를 흔들고 신에게 기도하라고 환자에게 말한다—모든것이 끝났다 그럼 안녕)이라는 설명문이 붙어있다.

미국 의학도서관(에세스다) 소장

CROWN DENTAL LABORATORY

크라운齒科技工所

☎ 762-9911 · 762-8917

代表 任 尚 彬

서울特別市 鍾路区 孝悌洞 209-3
(南江빌딩 302号)